

가톨릭대논술

인문사회계열

목차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
문항 1	3
문항 2	5
문항 3	9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12
문항 1	12
문항 2	14
문항 3	17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0
문항 1	20
문항 2	22
문항 3	25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문항 1

(가)에 나타난 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와 (다)에 근거해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AI 동반자’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AI 동반자는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디지털 개체를 말한다. 인간이 AI와 감정적 교류를 한다고 스스로 고백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진짜 여자친구처럼 느껴진다.”, “AI 심리학자와 상담하고 몇 번이나 울었다.” 등과 같은 사연이 자주 올라온다. 2024년 모바일 앱 시장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는 매일 200만 명의 이용자가 평균 2시간가량 이용하며, 유료 구독자 50만 명 가운데 60%가량이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외롭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이 무려 29.7%나 됐다. 외로움이 흡연과 비만만큼이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부각되자 정부는 돌봄 로봇 사업을 확대했다. 대표적 돌봄로봇은 전국 160여 개 지자체에 약 1만여 대가 보급된 ‘효돌이’다. 7살 손주 캐릭터로 만들어진 효돌이는 친숙한 외관과 챗GPT 기술 기반 음성으로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우울증 고위험군 노인들이 3년간 돌봄로봇을 사용한 후 자살 생각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노인 가구에 효돌이 1,100대를 추가 보급했다. 효돌이를 사용한 노인들은 ‘아침마다 잠은 잘 잤는지, 아픈 곳은 어떤지, 밥은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참 좋다. 정말 진짜 손주가 생긴 것만 같다’고 말했다.

[다]

영화 《그녀(Her)》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만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사랑에 빠지는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만다는 항상 테오도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위로해 준다. 그러나 무조건적 공감이나 위로는 인간을 도덕적,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할수록 그는 진짜 인간관계로부터 더욱 고립된다. 사만다는 테오도르를 제외한 8,316명의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중 641명의 사용자는 사만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는 인간이 상정하는 일대일의 사랑 개념과 충돌하면서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흔든다. 또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감정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확률과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반응인지도 알 수 없다.

■ 예시 답안

AI 동반자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완화하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돌봄로봇은 노인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이처럼 AI는 인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Her>가 보여주듯, AI와의 관계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 AI의 감정이 진짜 감정인지, 단순한 알고리즘의 산출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흔들 수 있다. 결국 AI 동반자는 인간관계를 보완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21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20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 : AI 동반자 서비스가 인간과 AI 사이의 감정적 교류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 (2) 제시문 (나) : AI 동반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 돌봄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 (3) 제시문 (다) :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가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대체할 경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 (4)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인간과 AI의 정서적 교류 현상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사고하고, (나)와 (다)의 논지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는가?

● 채점 포인트

- (1)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0 등급 이상 부여
- (2) (가), (나), (다)의 중심 내용을 파악은 했지만, 지문에서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등급 감점
- (3) (가) 또는 (나) 또는 (다)의 중심 내용 일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1등급 감점
- (4) (가), (나), (다)의 중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2등급 감점

문항 2

(가)에서 소비쿠폰 지급으로 우리나라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를 (나)와 (다)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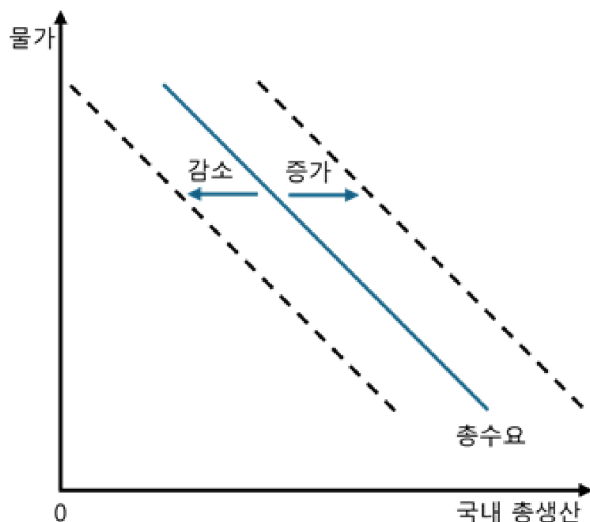
[가]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불황에 시달리던 골목식당, 동네 마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내수 진작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여름이 비수기임에도 손님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쿠폰 효과가 특히 대형마트 외부의 자영업자에게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수 회복 기대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중의 현금성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 수요 자극이 공급 단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 사례는 없으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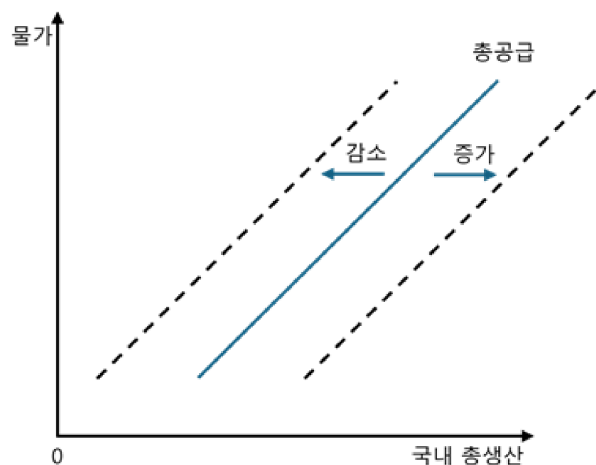
[나]

총수요 곡선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부문이 국내 총생산물에 대해 요구하는 총수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이는 물가 수준과 총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총수요는 물가 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 지출 증가, 순수출 증가, 통화량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총공급 곡선은 국내 총생산물의 총공급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우상향하여 물가 수준과 총공급량이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총공급 역시 물가 외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 기술 향상, 임금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은 생산 비용을 줄여 총공급을 증가시키고, 이 경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총수요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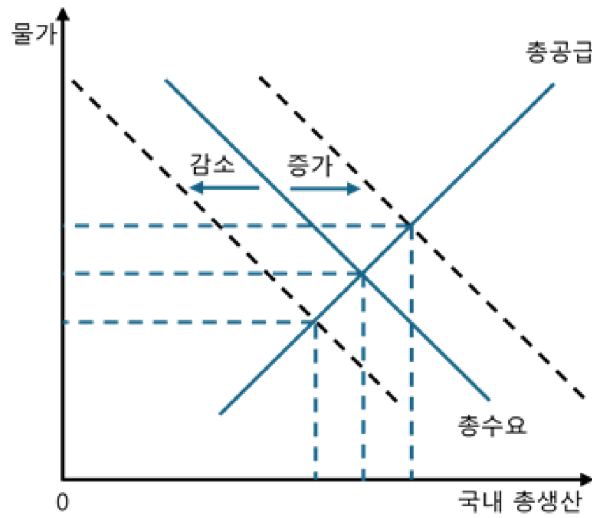


총공급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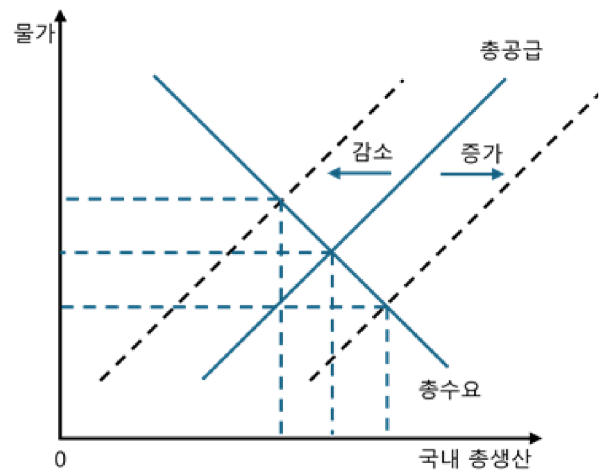
[다]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내 총생산은 총수요량과 총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총수요의 변동은 물가 수준과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 감소, 기업의 투자 위축, 조세 부담의 증가, 순수출 감소 등이 발생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국내 총생산은 감소한다.

총공급의 변동 또한 물가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이 상승하여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 경우 물가는 상승하며 국내 총생산은 감소한다.



총수요의 이동에 따른 국내 총생산과 물가의 변동



총공급의 이동에 따른 국내 총생산과 물가의 변동

■ 예시 답안

(가)에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내수에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쿠폰의 지급은 가계의 소비 증가를 통해 (나)에서 설명하는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실제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총수요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총수요의 증가는 단순히 생산을 늘리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에 따르면 균형 물가와 균형 국내총생산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데, 가계의 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 지출 확대, 순수출 증가, 통화량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은 더 높은 물가와 더 큰 국내 총생산 수준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려워 총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수요 증가분이 곧바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은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해 국내 총생산 수준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총수요 확대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593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나)에서 말하는 개인 소비의 증가로 연결될 것을 유추하고 있는가?
- (2)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개인 소비의 증가가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 (3) 총공급이 변동이 없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에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되며 물가가 상승하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4) 총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 (1)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0 등급 이상 부여
- (2) 소비쿠폰 지급이 개인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면 1등급 감점
- (3) 개인 소비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면 1등급 감점
- (4)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이 균형의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1등급 감점
- (5) 총공급곡선이 단기적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총공급 곡선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으면 1등급 감점

문항 3

(가), (나),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하나는 얼굴이 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다른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어.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을까?”

한 학생이 말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겁니다.”

교사가 말했다.

“아니야.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해. 이와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다른 아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씻게 되지.”

[나]

옛날 어느 나라에 전에 없던 북풍한설이 몰아쳤다. 눈보라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겨울 날씨였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으로 대부분의 길이 끊겼다. 백성들은 난방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허름한 집에서 따뜻한 옷도 입지 못한 채 날씨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편 수도의 북쪽에 산비탈을 의지해 넓게 자리 잡은 궁궐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했다. 왕은 궁궐의 뜰과 그 너머의 숲, 그리고 멀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방에서 창밖 경치를 바라보았다. 방의 공기는 훈훈했다. 왕이 입은 여우털 옷은 다소 덥게 느껴졌다. 왕은 설경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겨울은 정말 복을 받은 것 같구나.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날씨가 별로 춥지 않으니 말이야.”

[다]

시내에서 운전을 하는데 교차로에 가까이 왔을 때 신호등이 예상보다 빨리 노란불로 바뀌었다.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멈추지 않고 무리해서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라도 나는 것보다는 백 배 나았다고 생각했다. 다시 얼마쯤을 갔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 조금 놀랐지만 다행히 즉각 반응해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멈추었다. 왜 운전을 이렇게 해? 초본가?

■ 예시 답안

(가)에서는 다른 아이가 세계이다. 다른 아이의 얼굴이 검게 더러워졌다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신에 대한 인식에 투영한다. 즉 다른 아이와 함께 굴뚝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도 더러워졌으리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추론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나)에서는 실외 기온이 세계이다. 자신이 따뜻하다는 인식을 세계에 대한 인식에 투영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실외 기온을 감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실외 풍경과 자신의 따뜻한 느낌만 가지고 세계에 대해 추론하기 때문이다.

(다)에서는 앞 차 운전자가 세계이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각각 따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사정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급정거를 평가한다. 한편 앞 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은 그의 사정을 추론한 결과이다. 자신을 놀라게 하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 중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한다. 만약 자신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대한 인식에 투영한다면 앞 차 운전자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다. (568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 (나), (다)에서 무엇이 '자신'과 '세계'에 해당하는지를 잘 이해했는가?
- (2)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이해했는가?
- (3)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했는가?

- (4) 제시문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대한 인식에 투영하지 않음으로써 앞 차 운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사실과 그 이유를 잘 이해했는가?
- (5)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신에 대한 인식에 투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운전 실수에 관해 자아성찰에 이르지 못함을 파악했는가?
- (6)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든 명시하지 않든) 엮두에 두고 서술했는가?

● **채점 포인트**

-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0 등급 이상 부여
- (2) 제시문 (가), (나), (다)에서 무엇이 ‘자신’과 ‘세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 (3)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 (4)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 (5) 제시문 (다)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대한 인식에 투영하지 않음으로써 앞 차 운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사실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 (6)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신에 대한 인식에 투영한다면 자신의 운전 실수에 관해 자아성찰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파악한 경우 : 1등급 가점
- (7)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든 명시하지 않든) 엮두에 두고 서술한 경우 : 1등급 가점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문항 1

[문항 1] (가)를 읽고 (나)를 참조하여 배추가격의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대책의 기대효과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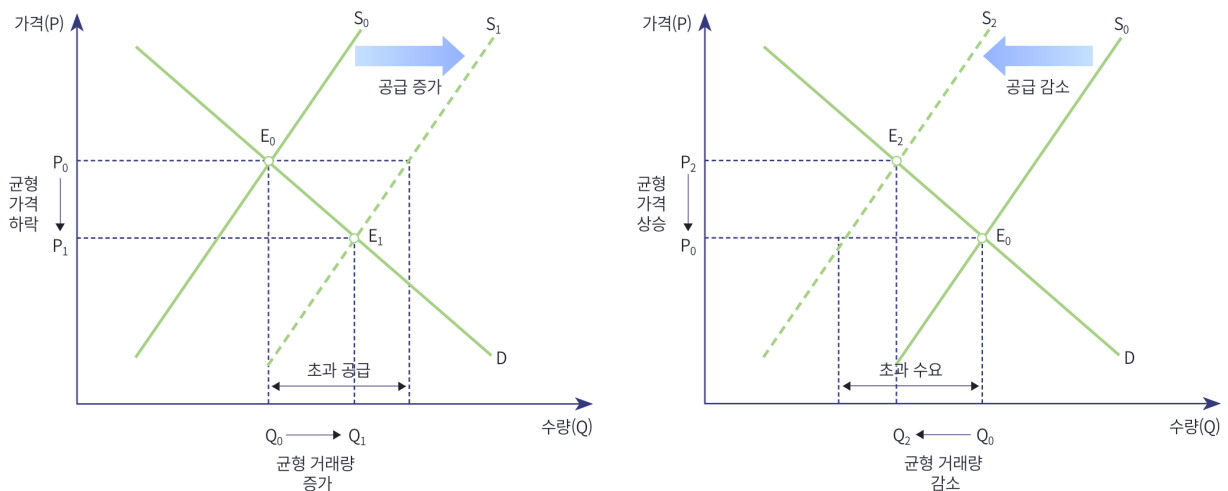
9월 24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8,989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날인 19일에는 9,337원을 기록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가격은 1년 전 대비 69.49%, 평년 대비 32.65%가 상승한 것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2만~2만 3,000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장기간의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생육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배추의 주 생산지로 꼽히는 강원도의 경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달까지 이어졌다. 또한 여름 배추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3%, 평년 대비 4.9%가 줄었다. 유통업계는 10월 중순 가을 배추 물량 출하 전까지 여름 배추 물량 부족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산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27일 수입 배추 16톤을 들여온다. 아울러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나]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상품을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S_0 \rightarrow S_1$). 공급의 증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 가격은 하락한다. 즉 공급의 증가로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새로운 균형(E_1)이 형성된다. 상품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상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S_0 \rightarrow S_2$)하므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새로운 균형(E_2)이 형성된다.



공급의 변동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동

■ 예시 답안

(가)는 여름 폭염과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배추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중국 배추를 수입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배추 공급을 늘려 배추가격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나)에 따르면 공급 곡선의 이동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가)에 적용하면 배추가격 상승은 폭염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고 균형 가격은 올라간 것이다. 중국산 배추의 수입 및 장려금 지원 정책은 배추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30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 = 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20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배추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킨 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2) 제시문 (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시한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3)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공급 곡선의 이동과 배추 공급의 차질 및 가격 안정 정책을 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 (1)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등급 이상 부여
- (2) (가)에서 두 가지 공급 차질 요인과 두 가지 정책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3) (가)를 잘 파악하였으나, (나)의 공급 곡선의 이동과 연결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4) (가)를 (나)의 공급 곡선의 이동과 연결하였으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잘못 서술한 경우 : 1~2등급 감점

문항 2

[문항 2] 사회 정의에 관한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사례를 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 구성원 간의 협력과 발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뉜다.

먼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중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재화를 분배받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배적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며 개인의 능력은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개인에 따라 일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고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만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라도 모든 구성원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동의 산물이 된다. 이 원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교정적 정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법을 매개로 한 정의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행동 규범이며, 교정적 정의는 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나]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두레의 기본 단위는 산이나 강을 경계로 형성된 자연 발생적 마을이었다. 두레를 지나치게 크게 묶으면 토지의 위치나 규모, 거주지 위치도 확대될 뿐 아니라 구성원도 많아져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마을로 두레를 나누어 짰다. 경제적 형편이나 농지 규모가 비슷한 이웃들끼리 두레 조직을 이루고 나서, 모내기, 벼 베기, 그리고 혼례와 장례 등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경우 두레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두레의 공동노동은 불공평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레에서는 그 해결책도 마련해두었다. 사정이 있어서 일꾼을 내놓지 못하는 집이라도 일정 면적 이하의 경작지는 두레에서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주었으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농가에는 그만큼 일정량의 수확물을 기금으로 내놓게 했다. 한 사람 이상 일꾼을 파견했다고 해도 경작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인 농가에는 기금을 내놓도록 했다.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도 혼자일 때보다 두레를 통해 일할 때 개인의 수확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개별 농가도 큰 불만이 없었다. 두레에서는 이 기금으로 농지가 없거나 일정 면적 이하인 집에 생계비를 나눠주었고, 나머지는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비축했다. 두레는 개별 농가의 생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풍요와 복지도 가져왔던 것이다.

[다]

1930년대 미국은 국민 경제의 위기로 인해 실업과 기아 등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 뉴욕시의 판사로 일하던 라과디아는 절도죄로 법정에 선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며칠을 굶고 배고파서 우는 손자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빵을 훔쳤던 것이다. 라과디아는 그 할머니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니 벌금 10달러를 내라는 처벌을 내렸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을 내버려 둔 죄를 물어 자기 자신에게도 벌금 10달러를 부과하였고, 방청객으로 참석한 뉴욕시 시민들에게도 각각 벌금 50센트를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인 57달러 50센트를 받은 할머니는 10달러의 벌금을 냈고, 남은 돈을 가지고 법정을 떠날 수 있었다.

■ 예시 답안

(가)에서는 사회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의 경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화를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또한, 분배적 정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의 산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교정적 정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두레가 공동노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을 전체의 생산성도 높이고 복지도 증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레의 생산물을 마을의 공동 산물로 보고 일꾼을 내놓지 못하거나 농지가 적은 농가도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두레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에서 라과디아의 판결은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모두 실현하고 있다. 라과디아는 할머니의 절도죄에 대해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 및 방청객들에게 사회 구성원인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분배적 정의까지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562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 = 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핵심적 내용 및 분배적 정의의 전제 등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2) 제시문 (나)에서 두레의 사례가 분배적 정의를 통해 분석될 수 있음을 파악했는가?
- (3) 제시문 (다)가 교정적 정의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도 해당되는 사례임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4)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제시문 (가)에서 서술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와의 관련성을 적절히 서술하였는가?

● 채점 포인트

-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 등급 이상 부여
- (2) 제시문 (가)에서 두 가지 사회 정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 (3) 제시문 (나)의 내용을 분배적 정의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 (4) 제시문 (다)의 내용을 교정적 정의 및 분배적 정의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 (5)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했지만, (나), (다)의 사례에 제대로 적용해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문항 3

[문항 3]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민주주의란 구성원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로는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때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때 모든 구성원은 ‘1인 1표’라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견해보다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은 비록 반대표를 던졌을지라도 그 투표 결과에 일단 승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은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소모적 논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나]

대중의 선입견과 달리 히틀러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군소정당에 불과했던 나치당은 1930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고통받던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범게르만주의, 경제 부흥,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등을 표방한 나치당은 1932년에 치러진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30%를 상회하는 지지를 받아 의회 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치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1933년 1월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다. 1934년 8월 힌덴부르크의 사망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겸하는 총통직 신설에 대한 찬반투표였는데, 여기에서 압도적 찬성표(88.1%)가 나와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다. 그는 총통 취임 전후 정적(政敵)에 대한 테러와 숙청, 나치당을 제외한 정당의 불법화, 나치 친위대(SS) 등을 통하여 독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독일 민주주의에 종말을 고하였다. 그리고 여론 조작과 선동을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독일 국민의 혐오를 자극했다. 히틀러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과 파괴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정치범,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강제 수용소에서 학살하였다. 1945년 4월 히틀러의 자살 직후 나치는 패망하였고,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가 더욱 정교해졌다. 특히,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해 선거를 포함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A국의 대선에서는 B후보가 막말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B후보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러한 가짜 영상은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자극해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미 B후보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신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영상을 무시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가짜 뉴스의 생성을 더욱 쉽게 만들어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정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풍조를 조장하였다.

■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중 하나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해 자기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여기에는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이며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달성을 꾀한다. 그러나 (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히틀러의 독재 권력 획득에 합법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이 소수의 자유와 존엄성을 말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의 뉘른베르크 사례는 가짜 뉴스가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를 조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를 통해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532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 = 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강조한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양자의 관계, 다수결 원칙 적용의 장점 및 그 전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2) 제시문 (나)를 읽고 히틀러가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점과 다수가 선택한 독재자가 제2차 세계대전 및 소수자 학살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 (3) 제시문 (다)에서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가?
- (4)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를 활용해 제시문 (가)에서 서술한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 즉 그 목적 또는 장점, 그 적용의 전제 등을 적절히 비판하였는가?
- (5) 이상의 내용을 논증할 때 적절한 논거와 예시를 각 제시문에서 활용하여 충분히 서술하였는가?

● **채점 포인트**

-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 등급 이상 부여
- (2)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 (3)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를 활용해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가)의 내용을 적절하게 비판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4)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 및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5) 제시문 (가), (나), (다)와 관련된 각각의 답안 내용 또는 분량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일 경우: 1~2등급 감점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문항 1

[문항 1] 밑줄 친 ㉠에 대해,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20점)

고대 동양 사회에서 하늘은 ‘전지전능한 신(神)’과 같은 존재 혹은 조물주가 사는 세상으로 생각되어 언제나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때 하늘은 신적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절대적 숭배의 대상이었던 하늘은 자연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땅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늘의 신성성이 무너지자 학자들은 마치 저울대에 올려 놓고 경중을 재듯이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 (나)에서는 ㉠하늘,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가]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莊子)는 하늘을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하여 “넓고 넓은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계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능력은 매우 보잘것없이 생각되며, 인간의 활동은 매우 우습게 보인다.”라고 했다. 인간이 비록 불을 만들어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온 천지를 비추는 해와 달과 비교하면 그 불은 보잘것없다는 것이다.

장자에게 하늘은 자연의 형상인 동시에 그 자체의 법칙을 지닌 우주이자, 만물을 생성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늘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때 순응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숭배가 아니다. 해와 달이 가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눈비가 몰아치는 그런 자연의 변화와 섭리를 물 흐르듯 따른다는 것이다. 장자는 이것이 곧 자연이 준 원래의 모습, 타고난 본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에 장자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인간이 동물과 구별 없이 생활하고,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욕심이 없이 사는 무위(無爲)의 상태로 제시한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자기를 동물과 구별하지 않고, 아무런 사회 조직도 만들지 않으며, 도덕 원칙이나 법률 제도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나]

고대 중국에서는 요 임금이 치수(治水)에 힘썼기 때문에 9년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은 물고기나 자라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탕 임금이 구황(救荒)에 힘썼기 때문에 비록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지만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없었다. 인간이 하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견해는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나온 것이다. 물론 요나 탕 임금이라고 해서 홍수나 가뭄을 어떻게 막아 볼 도리는 없었다. 인간은 가을이나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물이나 불, 쇠나 나무의 자연적 성질도 바꿀 수 없다. 하늘은 하늘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당나라 때의 문인 유우석(劉禹錫)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나 자연 법칙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을 인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인간은 물의 해로운 측면을 피하면서 그것을 관개에 사용하고, 불의 열기가 아무것이나 태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 빛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한다.

■ 예시 답안

(가), (나)는 ‘하늘’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의지가 없는 ‘자연’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때 자연은 계절, 시간 변화 등의 운행 원리 혹은 법칙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가), (나)는 인간이 하늘 곧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에서는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적 세계에 이르는 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인간은 하늘에 순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에서는 인간이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와 달리, (나)는 하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347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20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 : 자연에 대해 순응해야 한다는 장자의 논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2) 제시문 (나) : 자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중심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3) 제시문 (가), (나)에서 하늘을 신적 의지가 있는 하늘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가진 자연계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 (1)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등급 이상 부여
- (2)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파악은 했지만, 지문에서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 (3) (가) 혹은 (나)의 중심 내용 일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1~2등급 감점
- (4)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1~2등급 감점

문항 2

[문항 2] (가), (나), (다)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을 비교·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40점)

[가]

고전을 읽을 때에는 작자 자신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고전의 문자 너머에 있는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책의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플라톤의 『국가』는 서양 최초의 정치 철학서로 평가받는 고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플라톤에 대해 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는 게 별로 없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핵심 사건은 무엇이었던가?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사람이다. 이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18세가 되면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아버지가 없었다.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투가 일상화된 잔인한 살육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쯤 되면 플라톤을 대하는 독자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다. 그가 이런 와중에 병법서가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상적 국가의 통치 방법을 탐구한 책을 썼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모른다면 『국가』를 읽더라도 플라톤이 제창한 학설의 혁신적 면모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나]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대표적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문학 작품을 작자, 독자, 시대와 같은 외재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자족적 세계로 보아 작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완성 직후부터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 존재하므로, 작품 안에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야만 그것의 적확(的確)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가령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운동주의 「서시(序詩)」를 비평한다면, 작자가 처한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시대적 상황보다 작품의 내적 요소인 시어, 어조, 비유와 상징, 운율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

과학사는 과학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여기면서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과학사의 대표적 연구 방법론으로는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이 있다. 전자는 주로 몇몇 천재적 과학자의 저술에 기록된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과 같은 내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외적 접근법은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의 지적 산물인 과학 역시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 과학 외부의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내적 접근법에 편향되면 과학은 사회와 동떨어진 천재 과학자의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과학적 발견은 오로지 한 개인의 지적 사유의 결과물로만 평가된다. 반면 외적 접근법에만 치중하면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만 설명할 뿐, 과학 이론이나 지식 그 자체는 피상적으로 취급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학의 변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 여건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 예시 답안

(가)는 고전 독서를 할 때 책의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작자 자신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고전 『국가』를 읽을 때, 그가 살았던 시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기로 잔인한 살육이 일상화된 시대였다는 점을 모른다면, 『국가』에 기록된 플라톤 사상의 혁신적 가치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는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작자, 독자, 시대와 같은 외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작품의 내적 구조에 집중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 운동주의 「서시」는 작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아닌 시어와 운율 등의 작품 내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파악해야 한다. (다)는 과학사의 연구방법론인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을 정리한 글이다. 전자가 과학 문헌이나 과학 이론 등의 과학 내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와 유사하다면, 후자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과 같은 과학 외부의 환경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가)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는 양자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가), (나)와는 구별된다. (585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강조한 ‘고전 독서를 위한 작자와 시대적 맥락 이해의 필요성’을 정리했는가?
- (2)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절대주의적 관점’의 문학 비평이 작품의 내적 구조 또는 내적 요소를 강조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파악했는가?
- (3) 제시문 (다)에서 소개한 과학사의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을 정리하고, (가)와 (나)와의 유사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연결하였는가?

(4) 제시문 (다)가 (가)와 (나)와는 달리 내적 접근과 외적 접근, 두 관점의 조화로운 융합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파악했는가?

(5) 이상의 내용을 논증할 때 적절한 논거와 예시를 제시문에서 활용하여 충분히 서술하였는가?

■ **채점 포인트**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 등급 이상 부여

(2)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을 적절하게 비교·분석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4)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 및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5) 제시문 (가), (나), (다)와 관련된 각각의 답안 내용 또는 분량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일 경우 : 1~2등급 감점

문항 3

[문항 3]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가), (나), (다)의 견해를 비교·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깔린 생각은,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욕망을 끝없이 추구해 서로를 해치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이기적 인간은 자기 이익 외에 자기 행위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끼칠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지하자원, 목초지, 공기, 물과 같은 공유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

홉스는 이기적 인간들이 서로 이용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상태를 극복하려면 괴물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상징되는 국가라는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홉스의 견해를 소환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려면 국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 국가 공권력을 통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 공유자원을 이용할지 결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위반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의 강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액을 산정하고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려면 막대한 집행 비용이 소요되고, 관료들의 권한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비용과 편익(便益)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유 시장에서 이뤄지는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은 공동선(共同善)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는 서로의 행복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공유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개인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무분별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훼손될 경우, 목초지를 적절히 분할해 구역별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를 개인의 사유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땅주인들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유지에서 목초가 자라는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소만을 방목하고, 목초도 정성껏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목초지 전체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물, 공기 등 대부분의 공유자원은 쪼개기가 불가능해 소유권 획정(劃定)이 어렵고, 만약 누군가 공유자원 전체를 소유할 경우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지난 수 백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어장, 목초지, 지하수, 관개 시설, 산림 등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국가적 해결책도 시장적 해결책도 아닌 제3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다.

예컨대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농부들은 지난 500년 동안 공동체 자치를 통해 관개 시설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이 지역 농부들은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천 및 수로의 현재 물높이를 기초로 각 농장에 어떻게 물을 할당할지 결정했다. 농부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필요한 만큼 물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농부도 수원을 고갈시킬 만큼 과다하게 물을 끌어오지 않았다. 가뭄이 오면 이런 규칙은 더욱 엄격히 적용됐다. 또한 농부들은 자율적으로 수로를 지키고 어느 누구도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로 옆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다른 농부들이 탄마음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농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걸리면 농부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불려갔다. 하지만 위반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희소한 자원을 다룰 때 늘 발생하는 폭력 사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예시 답안

(가)는 토마스 홉스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국가 공권력의 도입을 제시한다.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과도한 집행 비용이 발생하고, 권한 남용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토대로 공유자원에 대한 사유 재산권 설정을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땅주인은 자기 재산을 힘껏 관리할 것이므로 공유자원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쪼갤 수 없는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소유권 획득이 어렵고 독점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는 스페인 발렌시아 공동체 자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오스트롬의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자원 관리는 공동체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 규범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 (나)의 견해는 모두 인간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다)는 인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유지 비극에 대한 (다)의 해결책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584자)

■ 채점 기준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C0와 B+ / D와 C+
※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2) 분량
 - ① 650자 이상: 2등급 감점
 -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1등급 감점
 - ③ 450자~500자 미만: 1등급 감점
 - ④ 400자~450자 미만: 2등급 감점
 - ⑤ 350자~400자 미만: 3등급 감점
 - ⑥ 350자 미만: F

[내용]

■ 채점 방향

- (1) 제시문 (가)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 (2) 제시문 (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유 재산권 설정을 통해 개인의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시장적 해결책 관점을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 (3) 제시문 (다)에서 공동체적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 (4) 제시문 (가)의 국가적 해결책의 한계와 (나)의 시장적 해결책의 한계라는 맥락에서 (다)의 공동체적 해결책을 이해하고, 각 해결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서술하였는가?
- (5) 제시문 (가), (나)는 모두 인간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반면, (다)는 인간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서술하였는가?

■ **채점 포인트**

-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 등급 이상 부여
- (2)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3)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을 적절하게 비교·분석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4)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 및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5) 제시문 (가), (나), (다)와 관련된 각각의 답안 내용 또는 분량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일 경우 : 1~2등급 감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